

# 한국 무속의 생태 사상과 치유 기능\*

이영금(안동대)

## < 목차 >

- |                   |                     |
|-------------------|---------------------|
| 1. 들어가는 말         | 3. 무당굿의 치유 기능       |
| 2. 무속의 생태적 가치와 특징 | 1) 음양의 부조화 발생과 그 원인 |
| 1) 유기적 통합체로서의 세계관 | 2) 신명풀이를 통한 치유      |
| 2) 음양의 조화로운 상생 도모 | 4. 맺는 말             |

## 1. 들어가는 말

무당굿은 신·인간·자연 간의 조화와 균형을 매우 강조하는 종교 양식이다. 특히 신과 인간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 불균형의 상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조화와 균형을 피하기 위해 무당굿을 연행하게 된다. 이들 관계의 불균형은 신의 원한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때문에, 무당굿에서는 신을 해원시켜 신과 인간의 질서를 바로 잡는 제의를 행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다양한 생물 감소·지구온난화·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자연생태계가

---

\* 국문표기; 이 논문은 2012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5A01022152],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2S1A5B5A01022152].

심각하게 파괴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자연생태계의 파괴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존립 기반을 뒤흔들고 있다. 에드워드 윌슨(Edward O. Wilson)에 따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시스템 중에서 가장 복잡한 시스템 중 하나가 자연생태계라고 한다. 자연생태계는 오랜 진화의 산물로 생성된 다양한 생물종들과, 그들 간의 상호관계가 형성되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것이다.<sup>1)</sup> 그런데 오랜 세월이 땅을 지배해온 서구의 과학적 합리주의는 신과 인간, 하늘과 땅, 남성과 여성 등을 분리시켜 보는 이분법적 사유 체계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분리의 사유체계는 기계론적 인간관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신·인간·자연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같은 이원적 대립 구도의 사유 체계로는 더 이상 지구를 강타하고 있는 생태계 파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생물학자인 루퍼드 쉘드레이크(Rupert Sheldrake)도 이러한 기계론적 사유 체계를 비판하면서 자연 혹은 생명에 대한 전일주의(holism)를 표방하기도 했다. 그는 살아있는 유기체 뿐만 아니라 분자·결정체·성운 같은 비생물학적 구성물까지도 더 작은 부분으로 쪼갤 수 없는 전일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sup>2)</sup> 따라서 지금까지의 분리적·파편적 지배 이념을 청산하고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총체 사유에 바탕을 둔 새로운 문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자가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한국의 무당굿은 신·인간·자연이 하나의 망(Web)으로 연결된 유기적 통합체로서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다. 무속은 서구의 지배 이념처럼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인간·자연이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한 몸통을 이루고 있다는 통합적·생태적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모든 만물은 각각 독립된 개체이면서도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어 상호 작용하는 전일적 체계(holistic system)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무속은 무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소우주로 보는데, 이러한 소우주

1) 에드워드 윌슨, 최재천·장대익 옮김, 『통섭』, 사이언스북스, 2005; 전방욱 옮김, 『생명의 미래』, 사이언스북스, 2005; 이한음 옮김, 『인간 본성에 대하여』, 2011.

2) 루퍼드 쉘드레이크, 박준원 옮김, 『세상을 바꿀 일곱가지 실험들』, 양문, 2000; R. Sheldrake, *Morphic Resonance : The Nature of Formative Causation*, Rochester, Vt. : Park Street Press, 2009.

는 대우주와 분리될 수 없다는 전일적·통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 즉 무속은 하늘과 땅, 신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긴밀하게 소통하는 유기적 관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속의 생태적 가치와 특성, 그리고 무속의 치유 기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무속에는 다신관·영혼불멸·해원상생·생명존중·생태사상 등 여러 사상이 복합되어 있지만, 자연 생태계 파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최근에는 무속의 생태 사상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무속의 생태 사상은 동양의 음양 오행 사상에 크게 의존해 있다. 무속의 창조 신화에도 우주 만물이 음양의 원리에 의해 태동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무속에 등장하는 다수의 신들도 음양 원리에 따라 대부분 짝을 이루고 있다. 무가를 보면, 조왕신은 팔만사천명이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 조왕신은 대개 음양으로 짝지어져 있다. 천룡신이나 성주신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신들은 대부분 부부간의 짝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행 원리에 입각하여 오방위에 각각 배치되어 있다.<sup>3)</sup> 이처럼 무당굿에는 동양의 음양 오행 사상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하겠다.

무속 및 민속 문화에 대한 생태 연구는 몇몇 학자에 의해 시도된 바 있으나<sup>4)</sup>, 무속에 대한 본격적인 생태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무속의 음양관에 관한 연구는 김현선에 의해 시도된 바 있다. 그는 신화소 분석을 토대로, 한국 고유의 시조 유래담이 중국의 음양관 수용으로 인해 변형/변이되었음을 자세히 규명하였다.<sup>5)</sup>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중국의 음양관의 영향으로 인한

3) 이영금, 『전북 셋김굿-전금순 무가』, 민속원, 2007 참조.

4) 임재해, 「굿 문화 연구의 성찰과 역사적 인식 지평의 확대」, 『한국무속학』11, 한국무속학회, 2006; 임재해, 「민속문화의 생태학적 인식: 제3의 민속학」, 『당대총서』16, 당대, 2002; 임재해, 「민속신앙에서 발견되는 한국인의 자연관과 현대적 변용」, 『한국연구재단 연구성과물』, 2001; 김현선, 「굿의 생태론적 의의 연구: 황해도 대동굿의 『별대감굿』을 예증으로 삼아」, 『비교민속학』41, 비교민속학회, 2010; 조정현, 「마을공동체 신앙과 생태민속: 하회별신굿의 생태민속학적 해석」, 『비교민속학』41, 비교민속학회, 2010.

5) 김현선, 「민속문화에 나타난 음양관-신화 시조유래담의 변형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의 음양관』, 국립민속박물관, 1997, 59~78쪽.

한국 신화의 변모 양상만을 살펴보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양오행 사상을 토대로 무속의 생태성과 치유 기능을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 2. 무속의 생태적 가치와 특징

### 1) 유기적 통합체로서의 세계관

무속은 동양의 오행(五行)의 원리를 중요한 사상 기반으로 삼고 있다. 음양의 원리가 우주 만물의 주요 변화 요인이지만<sup>6)</sup>, 음양의 원리를 좀 더 구체화한 것이 오행의 원리라 할 수 있다. 즉 음양 원리는 오행 원리의 기간(基幹)이고 오행 원리는 음양 원리의 지엽(枝葉)이 되는 것이다.<sup>7)</sup> 우주 만물은 오행의 기운 즉 목(木)·화(火)·토(土)·금(金)·수(水)에 의해 생멸 과정을 거치는데, 오행의 개념에 오(五)자를 붙이는 것은 우주 만물이 다섯 가지의 법칙권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행(行)자를 붙이는 것은 기운(氣運)이 취산(聚散; 모임과 흩어짐)하면서 순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행기(五行氣)가 응고하게 되면 형체를 이루어서 만물이 되지만, 만일 이것이 분해하게 되면 또다시 순수한 오행기로 변한다. 이와 같은 반복 과정 속에서 만물은 생성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 따라서 오행기는 무형과 유형의 양면성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sup>8)</sup>

김태곤은 무속을 토대로 인간의 존재를 ‘육체’를 가진 가시적 유형존재와 ‘영혼’만을 가진 불가시적 무형존재로 구분하고 있다. 육체를 가진 가시적 유형존재는 일정 기간만이 지속되는 순간적 존재이고, 육체가 없는 불가시적 무형존재 즉 영혼은 불멸의 영원 존재이다. 유형의 육체는 일정한 시간 동안만 이 세상에 있다가 그 일정한 기간의 끝과 함께 끝이 나서 죽어 없어지고, 무형의 영혼은 육체가 있는 이 세상을 떠나 저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시간을 초월하여 끝이

6) 무속의 음양 사상은 II장 2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7)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행림출판사, 1966, 50쪽.

8) 같은 책, 51쪽.

없는 불멸의 존재가 된다.<sup>9)</sup> 이처럼 김태곤은 무형의 존재까지 포함시켜 인간 존재의 범주를 확장시켰지만, 이는 존재의 규명을 인간에만 적용시키는 한계를 낳기도 했다. 무속 신관은 모든 만물에 영혼/신이 깃들어 있고 또 육체를 떠난 영혼도 불멸한다고 보기 때문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로 존재의 범주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즉, 모든 만물은 가시적 유형의 존재와 불가시적 무형의 존재로 구분될 수 있다.

이처럼 우주 만물들은 가시적 유형의 존재와 불가시적 무형의 존재로 구분되는 데, 가시적 유형의 존재는 육체와 정신의 결합을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다. 물질인 육체/몸은 응고된 오행기에 의해 생성·존립되고, 육체 안에 깃든 정신은 신(영혼)적 요소를 지니게 된다. 다시 말해, 모든 만물은 오행기의 뭉침으로 인해 육체/몸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육체/몸 내부에 신적인 요소 즉 영혼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오행기가 흩어져 육체가 소멸하게 되면, 영혼은 육체를 떠나 불가시적 무형의 존재가 되어 불멸한다. 육체를 떠난 영혼은 순수한 무형의 오행기로 잠복해 있다가 우주변화의 원리에 의해 오행기가 응고하게 되면 다시 육체/몸을 이루어 만물로 생성하는 것이다.

만물의 생멸 과정이 오행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무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북 셋김굿 무가에는 ‘금목수화토(金木水火土)로 인간점지 허옵시고 천지 운으로 자라나실 적<sup>10)</sup>’이라든가 ‘금목수화토(金木水火土)로 태어난 인생, 도로 흙으로 묻히네 그려<sup>11)</sup>’라는 가사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금(金) 기운으로 영향으로 눈이 생겨났고, 목(木) 기운의 영향으로 뼈가 생겨났으며, 수(水) 기운의 영향으로 피가 생성되었다고 한다. 또한 화(火) 기운의 영향으로 힘줄이 생겨났고, 토(土) 기운의 영향으로 살이 생겨나서 형상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탄생된 인간은 죽을 때에도 이 오행의 원리에 따라 흙으로 돌아간다고 보고 있다.<sup>12)</sup> 이와 같이 무속에서는 인간의 생멸이 다섯 가지

9)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95, 1판 6쇄, 155~156쪽.

10) 이영금, 같은 책, 84쪽.

11) 같은 책, 268쪽.

12) 같은 책, 38쪽.

기운(오행기) 즉 오행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부안군 위도면 대리마을의 공동체굿에서는, 오행 원리에 입각해서 5방위를 상징하는 5개의 제웅을 만들어 재액을 퇴치한다. 제웅 몸통에는 각각 ‘東方靑龍大將軍’·‘南方朱雀大將軍’·‘西方白虎大將軍’·‘北方玄武大將軍’·‘中央黃帝大將軍’이라는 글씨가 적혀있다. 5개의 제웅은 용왕제가 시작되기 전까지 마을의 동·서·남·북·중앙에 놓여진다. 이러한 제웅은 5방위신이면서도 오행기라고 할 수 있다. 5방위신 즉 오행기는 형체가 없는 영혼/신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짚으로 사람 형상의 신체를 만들어 실제 살아있는 존재처럼 가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체가 없는 오방위신을 위한 오신(娛神) 행위라 할 수 있다. 신체가 없는 오방위신/오행기에게 잠시나마 신체를 부여하는 행위는 마을 사람들의 기원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이 무속적 마을 공동체굿에서는 오행의 원리를 중시하며 마을의 안녕을 도모한다고 하겠다.

동양 철학에서는 육체/몸을 “체(體)”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본체(本體)·실체(實體)·체용(體用)이란 말처럼 육체/몸은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개에도 몸이 있고 나무에도 몸이 있으며 심지어 돌에도 몸이 있다. 우리가 통나무라고 할 때에도 통에는 몸의 개념이 들어가 있고 돌멩이라고 할 때에도 ‘-멩이’에는 몸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sup>13)</sup> 따라서 우주 만물은 육체/몸을 가진 존재라고 이해된다. 그런데 무속에서는 하늘에 있는 해·달·별, 산(山)·수(水)·수목(樹木)·암석(巖石) 등의 자연물, 동물·미생물 등의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만물은 신기(神氣)를 가진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sup>14)</sup> 심지어 인간조차도 신기를 가진 존재에 포함시키고 있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처럼, 가시적 유형의 존재는 육체/몸을 지닌 물질적 존재이다. 물(物)은 정신(精神)을 포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 속에는 약동하는 정신이

13) 김용옥, 『아름다움과 추함』, 통나무, 2000, 중판, 67쪽.

14) 무속은 자연이나 동물을 신으로 믿는 다신관을 형성하고 있다. 산·바다·나무 등의 자연물이 산신·용신·서낭신으로 섬겨지기도 하고, 구렁이·두꺼비·학 등이 업신으로 섬겨지기도 한다. 이러한 자연이나 동물들은 함부로 해칠 수 없는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포장되어 있다. 정신(精神)이라는 한자 속에는 만물에 신적 속성이 있음을 암시해준다. 그런 까닭에 무속에서는 모든 만물을 신기가 있는 존재로 보고 있다. 최한기도 우주 만물의 존재 자체를 신기로 보고 있다. 그는 “신기는 모든 실제적 이치가 기본으로 하고 있는 근원이요 뿌리다. 따라서 인간도 신기로 구성된 가합의 아이덴티티 체계요, 인간에게 대상으로 나타나는 모든 만사(物事)도 신기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 체계들이다. 그런데 이 천지지기(天地之氣)와 나의 형체지기(形體之氣)는 서로 단절될래야 단절될 수가 없다. 그것은 스스로 통(通)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통할 수 없다 하는 것은 기(氣)에서 신(神)이 소멸한 것이다. 그것은 죽음이다”<sup>15)</sup>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최한기는 우주 만물을 무생명적인 파트(part)의 조합으로서 작동되는 기계가 아니라, 신기(神氣)를 주체로 하는 유기적 통합체(organic totality)로 본 것이다.<sup>16)</sup> 그러나 유형의 존재 즉 실존하는 만물의 유기성에 대해서만 국한시켰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이론에서는 무형의 영혼 즉 신과의 유기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겠다.

조선후기의 사상가인 강증산은 신과의 관계까지 포함시켜 신·인간·자연이 긴밀하게 연결된 유기적 통합체임을 밝혀냈다. 그도 최한기처럼 천지간의 모든 만물들을 신과 기의 결합 즉 신기를 가진 존재로 인식했다. 그러나 증산은 무속 사상에 크게 의존해서 해원·상생 사상을 펼쳤기 때문에, 그의 사상은 무속의 다신관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는 삼신·칠성·조왕·관왕 등 무속의 다신관을 적극 수용했으며,<sup>17)</sup> 모든 만물과 신은 상응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신(神)이니,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르고 흙 바른 벽이라도 신이 떠나면 무너지고, 손톱 밑에 가지 하나 드는 것도 신이 들어서 되는”<sup>18)</sup>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모든 만물에 신기가 있으며, 이러한 신기를 통해 신과 인간은 상응할 수 있는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신기가 바로 우주 만물을 유기적으로 통합시켜줄 수 있는 연결 고리라 여겼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모든

15) 김용욱, 『해강 최한기와 유교』, 통나무, 2004, 116쪽.

16) 같은 책, 36쪽.

17) 『대순전경』, 1979, 2장 3절·3장 115절·134절·135절.

18) 『道典』, 1992, 174쪽.

만물이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몸통을 이루고 있다. 몸 가운데의 한 곳이 막힌 곳이 있으면 몸 전체가 불편하므로 그 막힌 곳을 풀어줌으로서 몸 전체가 건강을 회복한다”<sup>19)</sup>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증산은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실존하는 만물들, 그리고 다양한 신들은 각각 떨어져 독립할 수 없는 유기적 통합체라고 인식했던 것이다.<sup>20)</sup>

무속도 신·인간·자연이 서로 분리되지 않은 유기적 통합체로서의 세계관을 담고 있다. 김태곤은 시간과 공간이 분화되지 않은 카오스의 미분성(未分性)을 무속사교의 원본(arche-pattern)이라고 보고, 이 원본 사고가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무당굿이라고 하였다. 그는 존재 자체를 카오스와 코스모스의 순환체계로 인식하면서, 영혼 불멸을 믿는 것과 존재의 획득·지속을 위해 카오스의 상황에서 제의를 하는 것 등이 원본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였다. 원본 사고는 우주질서를 초월한 카오스의 미분적(未分的) 상황에 기반을 둔 사고이기 때문에, 무당굿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카오스의 미분적 상황은 유무(有無)·생멸(生滅)·시종(始終)의 구분이 전혀 없는 모든 존재의 동일(同一) 근원(根源)이 된다.<sup>21)</sup> 무속 신화인 <창세 무가>를 보면, 인간의 탄생이 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음양 원리에 의해 저절로 이루어졌고, 남자는 금벌레에서, 여자는 은벌레에서 대등하게 탄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죽어 바위나 소나무가 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sup>22)</sup> 전북 무가인 <칠성풀이>에도 악행을 저지른 사씨 부인이 육체가 반으로 쪼개지는 하늘의 벌을 받아 한 토막은 두더지가 되고, 나머지 한 토막은 실뱀이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sup>23)</sup> 이처럼 인간이 벌레에서 탄생되고 또 죽어서 바위·소나무·두더지·뱀이 된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결국 하나의 몸통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 또한, 인간이 신이 되는 경우도 많은 무가 사설에 등장한다. 예를 들어,

19) 이경원, 『해원상생의 의미와 천지공사』, 『대순사상논총』, 1998, 10쪽.

20) 이영금, 『무속사상과 증산사상의 상관성-해원사상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28집, 한국무속학회, 2014 참조.

21) 김태곤, 앞의 책, 151~193쪽.

22) 같은 책, 172~177쪽.

23) 이영금, 앞의 책, 178쪽.

전북의 <칠성풀이> 무기를 보면, 천상국의 칠성님과 지하국의 매화부인이 혼인하여 낳은 칠형제가 지상에서 성장한 뒤 나중에 칠성신으로 좌정하게 된다. 전북의 <제석풀이> 무가에서도 황금산 주지와 당금애기가 혼인하여 낳은 아들이 제석신으로 좌정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이러한 무가에서는 인간조차도 신이 될 수 있는 존재임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무속 신화에서는 생물이건 무생물이건 유기체이건 무기체이건 모든 우주 만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존재이고 또 이러한 우주 만물은 동일 근원에 바탕을 둔 대등한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다 하겠다.

불가지적 무형의 존재 즉 신은 인간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소멸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인식된다. 무속에서는 인간의 탄생이 삼신제왕의 점지에 의해 이루어지고, 칠성신의 도움이 있어야만 수명장수할 수 있으며, 각종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손님신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망자가 죽어 저승질서에 편입되지 못할 경우에는 저승신인 오구세왕님·저승사자·바리데기 등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승으로의 편입이 가능하며, 산탈이 있을 경우에는 산신의 분노를 가라앉혀야만 재액을 물리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지상에서의 수신(水神)<sup>24)</sup>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물은 곧 생명줄이므로 수신(水神)의 도움이 있어야만 만물은 생존할 수 있다. 즉 물이 있어야만 땅에서 곡식이 자랄 수 있고, 바다에서도 물고기들이 잘 자랄 수 있으며, 인간은 땅과 바다에서 얻은 음식물로 생명을 유지해나갈 수 있다. 이외에도 인간과 조상신의 관계는 매우 긴밀한 상응 관계를 이루고 있다. 조상은 한때 가족 구성원에 속해 있던 존재였기 때문에, 조상은 죽어서도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상은 직접적으로 후손을 돌보는 재복신으로 작용하지만, 조상 가운데 원한 맺혀 죽은 원혼신이 있을 경우 이러한 원혼신은 후손들에게 탈/재액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이처럼 각 영역의 신들은 인간의 생멸에 깊이 관여하는 존재라 인식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무속에서는 신·인간·자연의 관계가 서로 분리되지 않는 유기적 통합체라는 사실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무당굿에서는 인간적·우주적

24) 수신은 어업 지역에서는 용왕신이라 부르며, 농업 지역에서는 용신 또는 비(雨)신이라 부른다.

· 초자연적 차원이 교감하는 신화적 사고의 틀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곳판에서는 신·인간·자연이 서로 교감하고 조화를 이루는 화합의 장이 펼쳐지게 된다.

## 2) 음양의 조화로운 상생 도모

무속 사상은 동양의 전통 음양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음양(陰陽)은 <+>와 <->라는 서로 상반된 기운(氣運)을 의미한다. 음양관은 세계가 대립적인 이분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파악하고, 그 대립적 사상이 상생과 상극의 법칙<sup>25)</sup>을 통해서 재창조되고 생성되는 것으로 체계화한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음양관에서는 음과 양의 대립적인 요소들이 화합하거나, 넘치는 쪽을 눌러서 평상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함으로써 우주만상이 생성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나아가 음과 양의 대립 구조는 그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므로 음양의 대립을 넘어서 화합에서 창조와 생명력이 생성된다는 것이 음양관의 궁극적 이상이다.<sup>26)</sup> 이러한 동양의 음양관은 한국의 무속에도 크게 반영되어 있다.

한국의 무당굿은 신·인간·자연 간의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는 종교 양식이다. 신·인간·자연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불균형의 상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조화와 균형을 피하기 위해 무당굿을 연행하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우주 만물은 신기가 있는 존재인데, 이러한 신기는 다시 음기와 양기로 구분되어 설명될 수 있다. 즉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인간과 신, 인간과 자연 등의 관계에서 하늘·남자·인간을 양기로, 땅·여자·신·자연 등을 음기로 보는 것이다.<sup>27)</sup> 무속에서는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5) 상생이 음과 양의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이들의 조화와 균형을 피하려는 법칙이라면, 상극은 음이나 양의 어느 한쪽에만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여 상대 쪽을 압승하려는 법칙이라 할 수 있다.

26) 김의숙, 『민속신앙의례와 속신의 음양관』, 『민속학연구』4호, 국립민속박물관, 1997, 152쪽.

27) 음양은 상대적 개념이다.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인간과 신, 인간과 자연의 음양 관계 이외에도 불(火)과 물(水), 밝음과 어둠, 따뜻함과 차가움, 태양과 달, 기쁨과 슬픔 등을 음양 관계로 보기도 한다. 즉 전자를 양기로, 후자를 음기로 보는 것이다.

## (1) 하늘(天)과 땅(地)의 조화

음양의 원리는 종종 자연계의 현상으로 가시화된다. 하늘과 땅은 만물을 생성시키는 원동력으로 음양의 원기(元氣)에 해당한다. 즉 음양의 원기는 하늘과 땅이 있으므로 천지 사이의 삼라만상이 나타난다. <주역>에서 “건(乾)은 해를 주요소로 하고 천(天)의 양기로서 만물에 빛과 열을 주며, 곤(坤)은 흙을 주요소로 하고 땅의 덕이 만물을 양육신장시킴을 표시하고 있다.<sup>28)</sup> 한국 무속에서는 천지(天地)의 음양 조화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제주도 <초감제> 무가에는 인류 최초의 만물이 하늘과 땅의 결합으로 탄생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즉 혼돈의 카오스에서 하늘과 땅이 스스로 열린 후에 하늘에서 칭이슬이 내리고 땅에서 흑이슬이 솟아서로 합쳐서 음양(陰陽) 상통(相通)으로 만물이 생겨났다는 것이다.<sup>29)</sup> 여기서 하늘(天)은 양(陽)에 해당되고, 땅(地)은 음(陰)에 해당된다. 혼돈의 카오스 상태에서 하늘과 땅의 구분이 처음 생겼고,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하늘의 기운 즉 양기(陽氣)와 땅의 기운 즉 음기(陰氣)의 결합으로 인해 생성되었다는 것이다. 즉 하늘에서 햇빛이나 비 등을 제공해주지 않거나, 땅의 영양분이 없으면 지상의 모든 생명체는 존속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고 보고 있다. 칠성신의 좌정 내력을 담은 칠성풀이를 살펴보면, 천상국의 칠성신과 지하국의 매화부인의 결합으로 칠형제가 탄생된다.<sup>30)</sup> 칠성신은 양(하늘)이고 매화부인은 음(땅)에 해당된다. 음양의 결합에 의해 탄생된 칠형제는 나중에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칠성신(별신)으로 좌정하게 된다. 이처럼 무속은 인간을 비롯한 만물이 하늘과 땅의 동등한 결합으로 탄생된 결과물임을 말해주고 있다.

무속은 우주 만물에 신이 있다고 보는 다신관에 입각해 있는데, 이러한 다신관은 크게 천신과 지신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지신의 범주를 좀 더 세분화시켜 지상신과 지하신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천신에는 옥황상제·달신·해신·별신(칠성신)·삼신·손님·제석신·조상신 등이 존재하고, 지상신에는 지신·산신·당산신·

28) 강영환, 『한국 전통주거에 나타난 음양관』, 『민속학연구』4호, 국립민속박물관, 1997, 133쪽.

29) 김태곤, 앞의 책, 173쪽.

30) 이영금, 앞의 책, 141쪽.

서낭신·오방신장·조왕신·성주신·천룡신·수문장·걸립대감신·용왕신 등이 존재하며, 지하신에는 죽음을 관장하는 오구시왕·바리데기·저승사자 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오구 씻김굿은 억울하게 죽은 망자를 해원하여 조상신으로 좌정시키는 의식이지만, 이러한 굿에서도 반드시 천신·지상신·지하신 등이 청배되어 대접받는다. 다시 말해, 오구 씻김굿에서는 제석신·손님·칠성신·조상신 등의 천신과 조왕신·천룡신·지신·성주신·당산신·서낭신·산신 등의 지상신, 그리고 죽음을 관장하는 오구시왕·바리데기·저승사자 등의 지하신이 청배되어 망자의 해원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망자의 원한은 원칙적으로 망자와 살아 있는 가족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지만, 망자의 해원은 이들 당사자 간의 화해만으로는 풀릴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천신과 지신을 초청하여 이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형태를 취한다.<sup>31)</sup> 따라서 씻김굿은 천신(양)과 지신(음)의 조화와 균형을 꾀하면서 망자의 원혼을 해원시키는 의식이라 하겠다.

## (2) 암컷(女)과 수컷(男)의 조화

동양의 음양관에서는 암컷(여자)을 음기로, 수컷(남자)을 양기로 보면서 암수의 결합으로 만물이 탄생됨을 강조해왔다.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소우주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우주는 대우주의 음양 원리에 의해 작동된다고 본 것이다. 무속에서도 이러한 음양의 조화와 균형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무속 신화인 <창세무가>를 보면, 인간은 음양 원리에 의해 저절로 생겨났는데, 남자는 금벌레에서, 여자는 은벌레에서 대등하게 탄생된 것으로 되어 있다.<sup>32)</sup>

암컷과 수컷의 결합 및 균형 강조는 전복의 <제석풀이> 무가에서도 잘 드러난다. 제석풀이에는 ‘오랫동안 산속에서 수행하고 살던 황금산 대사가 홀로 사는 자신의 신체를 한탄하며 속가로 내려오는데, 이 과정에서 당금애기와 만나게 되고 이후 환속하여 자식 낳고 잘 살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무가에서는 학식이 높은 황금산 대사를 ‘깨끼중’으로 비하하며 이야기가 해학적으로 전개되는데, 이러한 비하에는 아무리 높은 경지의 도를 깨우쳐 대사가 되었어도 음양의 이치를

31) 자세한 내용은 같은 책 참조.

32) 김태곤, 앞의 책, 172~177쪽.

깨닫지 못하면 허무한 삶이라고 비웃는 무속적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 결국 ‘깨끼중’으로 비하되던 대사는 음양의 이치를 깨달은 후 당금예기와 혼인을 하게 되고, 자신이 데리고 있던 중들까지 혼인시켜 속가로 돌려보는 행위까지 하게 된다. 즉 제석풀이 후반부에서는 황금산 대사가 자신이 데리고 있던 중들을 각각 짝지어 속가로 돌려보내는 ‘상좌 짝짓기 놀이’가 펼쳐지는 것이다.<sup>33)</sup> 암수 결합으로 인한 생산은 곧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무속에서는 암수의 결합 및 조화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하겠다.

남녀 간의 음양 조화는 산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나타난다. 무속에서는 미혼으로 사망한 영혼들을 가장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이들의 깊은 원한이 산 사람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속에서는 ‘영혼 혼사굿(혼인굿)’이라는 의례 장치를 마련하여 이들을 혼인시키는 의식을 행한다. 즉 짝으로 엮은 남자와 여자의 신체를 마련한 뒤 이들을 산 사람처럼 혼인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 이들은 부부가 되고, 이들 가족들은 사돈 관계로 맺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혼례의식은 마을 공동체굿인 안동 하회마을 별신굿에서도 행해진다. 별신굿 과정에서는 미혼으로 사망한 서낭각시와 총각도령의 혼례식·합방의식<sup>34)</sup>이 행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무당굿은 암컷과 수컷의 결합과 조화를 강조하는 제의라 하겠다.

### (3) 신과 인간의 조화

무속에서는 신과 인간을 음양의 관계로 보고 이들 간의 조화 및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즉 신을 음기(陰氣)로, 인간을 양기(陽氣)로 보면서 신과 인간 간의 원만한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무속에서는 인간이 죽어도 영혼은 불멸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은 이승의 삶에 깊이 관여한다고 보고 있다. 즉 육체를 떠난 영혼은 지손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탈을 주기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신과 인간은 음양으로 얽히면서 소통하는 관계라고 하겠다.

무속 사상은 우주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다신관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33) 이영금, 앞의 책, 51~54쪽.

34) 박진태, 『하회별신굿탈놀이』, 피아, 2006.

기독교 사상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무속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신들은 인간에게 탈/재앙을 줄 수도 있고 복을 줄 수도 있는 이중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신과 인간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인간의 삶이 위태롭게 되는데, 이들 간의 갈등을 중재해주는 것이 바로 무당굿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억울하게 죽은 원혼신이 맺힌 원한으로 인해 산 사람에게 재액을 주게 되면, 씻김굿으로 신을 해원시켜 신과 인간 즉 음양의 질서를 균형 있게 바로 잡아 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 잡신에 머물렀던 원혼신은 조상신으로 합류하게 되고, 산 사람에게 복을 주는 복신(福神)으로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무당굿은 신과 인간의 조화로운 상생관계를 도모하는 제의라 하겠다.<sup>35)</sup>

#### (4) 자연(동물 포함)과 인간의 조화

동양의 음양관에서는 자연을 음기로, 인간을 양기로 인식하면서 이들의 상호작용에 주목해왔다. 한국의 무속에도 자연과 인간의 음양 조화 사상이 강하게 배태되어 있다. 모든 자연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무속의 신관은 곧 자연 존중 사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즉 모든 자연 만물은 신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자연은 함부로 훼손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섬겨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바다·나무·해·달·별·땅·바람 등과 같은 자연물은 산신·용신·당산신·서낭신·일월성신(日月星辰)·북두칠성신·지신(地神)·영등신 등으로 섬겨진다. 또한 호랑이는 산신이나 서낭신으로 섬겨지고,<sup>36)</sup> 뱀·두꺼비·학·말·부엉이·돼지 등은 업신으로 섬겨진다.

일반적으로 뱀신은 업신으로 인식되지만, 제주도에서는 뱀신이 마을 공동체 신격으로 숭배되기도 한다. 여드레당(八日堂)에 뱀신이 좌정해 있을 정도로 제주도에서는 뱀신 숭배사상이 깊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 신화인 ‘칠성본풀이’는 뱀신의 좌정 내력이 담겨 있는 서사무가이다. 즉 ‘중의 자식을 임신하여 돌함에 담겨서 유배된 처녀가 뱀으로 변하여 일곱 마리의 뱀을 낳게 되는데, 이 뱀들이 각기

35) 신과 인간의 음양 관계는 ‘Ⅲ. 무당굿의 치유적 기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36) 홍태한·박우택 엮음, 『한국의 무신도』, 민속원, 2008, 175쪽.

뒤결의 밧칠성, 고팡(庫房)의 안칠성들로서 부신(富神)으로 좌정된다’는 것이다.<sup>37)</sup> 제주도 사람들은 뱀신을 잘 위로하고 대접하면 재액을 물리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처럼 자연은 신과 동등한 성격을 띠며 존중받는 존재로 부각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상생 추구는 무당굿에서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 성주굿은 가옥을 관장하는 성주신을 청배하여 복을 기원하는 의식인데, 성주굿은 ‘성주 재목내기’·‘명당터잡기(지경다지기)’·‘성주모시기’ 등으로 구성된다. 성주굿의 한 과정인 ‘명당터잡기(지경다지기)’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강조하고 있다.

동편 기둥의 첫채간은 청용 한쌍이 들어있네  
 용으 머리를 건들세라 날아감서 다워주소  
 어그영차 지경이야  
 남편 지둥으 둘째 간의 적용 한쌍이 둘러 있네  
 용으 머리 건들세라 날아 감서 다워주소  
 어그영차 지경이야  
 서편 지둥으 세채 간의 백룡 한쌍이 둘러 있네  
 용으 머리를 건들세라 어그영차 지경이야  
 북편 지둥으 네채간으 흑용 한쌍이 둘러 있네  
 어그영차 지경이야  
 중앙 주추으 주추 밑이 황용 한쌍이 들어 있네  
 용으 머리를 건들세라 날아감서 다워주소  
 어그영차 지경이야<sup>38)</sup>

‘지경다지기’는 집을 짓기 위해 명당터를 잡아 땅을 다지는 과정이다. 이 무가에서는 다섯 개의 기둥에 각각 한쌍의 용이 깃들어 있으니 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땅을 다지라고 당부하고 있다. 용들은 5방위를 지키는 방위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옥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과 신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 된다.

37)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65쪽.

38) 문화재관리국, 「부안지방 무의식」, 『한국민속종합조사 보고서-무의식편』, 1983, 256~257쪽.

자연은 곧 신이기 때문에 이 무가에는 자연 존중 정신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즉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하며,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가르침이 내재되어 있다 하겠다.

자연과 인간의 상생 정신은 제석굿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제석굿은 제석신을 청배하여 대접해주고 복을 기원하는 제의이다. 제석굿의 ‘업 맞이’ 과정에서는 뱀·두꺼비·학·우마(牛馬)·부엉이·돼지 등을 업신(業神)으로 여겨 이들을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의식을 행한다. ‘업맞이’ 과정은 노적과 업을 집안으로 끌어들여 복을 받고자 하는 주술적 놀이다. 뱀·두꺼비·학·우마(牛馬)·부엉이·돼지 등의 업신은 이러한 의례를 통해 곳간이나 노적에 좌정한 뒤 집안의 번창과 풍요를 담당하게 된다.<sup>39)</sup> 이와 같이 무속에서는 자연/동물과 인간이 상생 관계에 있는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다.

자연과 인간 간의 갈등이 생기면 인간에게 탈/재액이 발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잘못된 산소 이장으로 인해 가정에 재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산탈<sup>40)</sup>에서 찾는 경우가 많다. 즉 산신이 거처하는 산을 함부로 건드려 산신의 분노를 샀다는 것이다. 신의 분노의 기운이 후손에게 불어 닥치면, 후손은 비명횡사하거나 가정불화 등의 갖은 재액을 입을 수 있다. 마을의 수호신인 당산나무를 훼손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산이나 당산나무는 자연물에 불과하지만 이들 자연은 신이 깃들어 있는 성소로 인식되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곧 신을 훼손하는 일이 된다. 이럴 경우 무당굿을 마련하여 자연/신과 인간 간의 갈등을 풀고 균형 있는 상생의 질서를 도모하게 된다.

인간과 동물 사이의 갈등을 푸는 의식은 ‘장지풀이’ 서사무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장지풀이는 저승사자를 청배하여 위로한 뒤 집안의 액막이와 망자의 극락천도를 기원하는 서사무가이다. 이 무가에는 죽을 위기에 처한 사마장자가 자신이 타고 다니던 백마(白馬)를 ‘대신맥이’로 보내고 살아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이 무가에서는 사마장자 대신 저승으로 끌려간 백마도 해원 대상이 된다. 좀

39) 이영금, 앞의 책, 231~233쪽.

40) 산탈은 흔히 산바람·신바람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러한 산탈은 산신의 노여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승에 끌려가 지옥에 갇히게 된 백마는 원한을 품게 되고 그 원한은 사마장자에게 영향을 미쳐 사마장자가 다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 백마는 사마장자의 꿈에 나타나 자신은 사마장자를 등에 태우고 산 죄밖에 없는데 왜 자신이 억울한 지옥살이를 해야 하나며 하소연한다. 결국 사마장자는 백마의 원한을 해원시키는 ‘말 씻김굿’을 해주는데, 백마는 이러한 의식을 통해 해원을 받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sup>41)</sup> 이와 같이 무당굿은 인간과 동물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마저 해소시키면서 상생의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제의라 하겠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무속은 신·인간·자연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된 유기적 통합체로서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다. 무속에서는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인간과 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분리시켜 보지 않고 유기적 상생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무속은 신기를 우주 만물의 핵심적 연결 고리로 파악하는데, 이러한 신기는 다시 양기와 음기로 구분될 수 있다. 즉 하늘·남자·인간 등은 양기에 해당되고, 땅·여자·신·자연 등은 음기에 해당된다. 양기와 음기는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유기적 관계에 놓여 있다. 양기와 음기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화합하기도 한다. 양기와 음기가 충돌하여 균형이 깨졌을 경우에는 무당굿이 마련되는데, 신·인간·자연은 이러한 의식을 통해 조화로운 상생의 질서를 회복하게 된다. 따라서 무당굿은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동물 간의 조화와 균형을 꾀하는 상생의 종교 양식이라 하겠다.

### 3. 무당굿의 치유 기능

#### 1) 음양의 부조화 발생과 그 원인

앞에서도 살펴본 바처럼, 무당굿은 신·인간·자연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41) 문화재 관리국, 앞의 책, 254~255쪽.

해결하고 이들 간의 조화로운 상생 관계를 형성케 하는 제의이다. 특히 신과 인간 사이에 갈등이 생겨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이들 간의 조화와 균형을 피하기 위해 무당굿이 마련된다.<sup>42)</sup> 모든 우주 만물은 신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은 음기에 해당되고 인간은 양기에 해당된다. 음기와 양기가 충돌하여 상극 상태에 이르게 되면, 신과 인간은 서로 간의 갈등으로 인해 부조화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즉 신의 음기가 너무 강해서 인간의 양기가 위축되어버리면, 신과 인간의 관계는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신과 인간이 균형 상태에 있을 때는 신이 복신(福神)으로 작용하지만, 신과 인간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면 신은 살/탈을 주는 존재 즉 악신(惡神)으로 작용하게 된다. 음기가 양기를 너무 강하게 누르는 상극 상태에 이르게 되면, 신의 음기는 살기가 되고 독기가 된다. 이러한 살기/독기는 인간의 삶을 매우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즉 살기의 영향으로 인간이 병들거나 각종 제약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42) 음양의 균형이 깨졌을 때만 무당굿이 연행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음양의 균형은 살아가면서 무수히 깨질 수 있다고 본다. 인간도 신기를 가진 존재이고 또 인간 사이에서 빚어가는 갈등도 무수히 존재한다.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요즘 같이 제사의식이 별로 없는 시대에는 신과 인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 마을 공동체굿에서는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갈등을 풀기 위해 적어도 일 년에 한번 제사를 드린다. 갈등이 누적되면 공동체 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굿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가정굿을 항상 하는 것은 아니다. 삶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갈등이 심화될 때 굿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재수굿 같은 경우에는 신과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행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재수굿이라 해서 음양이 조화로운 상태라고 말할 수는 없다. 재수가 좋다면 굳이 굿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재수굿을 할 때도, 평소에 신의 감정이 맺혀 있다고 전제한 뒤 복을 받고자 하는 신을 극진히 대접하는 의식을 거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신의 억눌린 감정을 풀어주는 오신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무당굿은 음양의 조화로운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신의 비위를 맞추는 의식 즉 맺힌 감정을 풀어주는 의식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재수굿의 핵심 굿거리는 제석굿인데, 제석굿 과정에서는 신의 원한을 풀어주는 '고풀이'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 고풀이는 맺힌 원한의 감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고/매듭을 풀어주는 의식에 해당된다. 이처럼 재수신/재복신인 제석마저도 인간에게 맺힌 감정이 있다고 보고 고풀이 의식을 통해 신의 원한을 풀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살/탈의 원인은 음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기가 가진 원한/분노의 감정에 있다는 사실이다. 신이 분노의 감정을 가지게 되면 그러한 기운은 살기운·독기운이 되어 인간에게 탈/재앙을 가져다주게 된다. 다시 말해, 살기에 노출된 사람은 강한 신의 음기에 놀리게 되고 인간의 양기는 더욱 위축되어 우울증·신병 등에 시달리거나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살기운은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작게는 가정 공동체 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크게는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파급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집안의 조상 가운데 원혼신이 존재할 경우, 이 원혼신은 자신이 지닌 원한의 감정 때문에 저승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집 주변을 떠돌며 가족들에게 해악을 끼치게 된다. 이럴 경우 원혼신을 해원시키는 오구 씻김굿이 마련된다. 씻김굿을 통해 원혼신의 맺힌 감정이 풀리게 되면, 집안을 드리우고 있는 살기운이 견혀지고 원혼신도 저승 질서에 안전하게 편입된다. 원혼신은 원한의 감정을 풀고 조상신으로 좌정되어 후손들을 돌보는 복신(福神)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신 즉 음기의 살기운이 마을 공동체에 미쳤을 경우에는 그 여파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바다에서의 여객선 사고나 비행기 추락 사고와 같은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수많은 영혼이 원혼신이 된다. 사고 발생 지역에서는 수많은 원혼신들이 내뿜은 살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재액을 입는 경우가 많다. 즉 원혼신들은 불의의 사고로 객사를 당한 억울함 때문에 마을 곳곳을 떠돌며 마을 사람들에게 재액을 가져다준다고 인식되는 것이다. 원혼신에 대한 두려움이 극대화되면, 마을 사람들은 여러 마을과 연합하여 무속 수록제와 같은 공동체굿을 벌이기도 한다. 이러한 공동체굿을 통해 원혼신들은 분노의 감정을 풀고 해원이 되어 저승 질서에 안전하게 편입된다. 이상 살펴본 바처럼, 신의 분노에서 발생된 살기가 한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작게는 가족 구성원 전체에, 크게는 다수의 마을 공동체 구성원에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기운이 뺏치면 인간은 생기 있는 천지의 기운을 제대로 흡수할 수가 없다. 인간은 천지의 기운과 한 몸통을 이루는 유기적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살기운이 신과 인간의 통로를 막고 있으면, 천지의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조상신이 아무리 후손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인간과 산신 또는 원혼신

사이에 맺힌 원한이 있으면, 산신 또는 원혼신의 방해로 조상신의 복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럴 경우 무당굿을 통해 원한신의 살기운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게 된다.

## 2) 신명풀이를 통한 치유

살기운은 신의 원한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때문에, 무당굿의 치유 방식은 신의 원한을 풀어주는 데 있다. 신과 인간 사이에 맺힌 분노의 감정 즉 원한만 풀어주면 산 사람의 병이나 재액이 퇴치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무당굿의 재액 퇴치는 살/탈을 몰고 온 신을 무조건 내쫓는 방식이 아니다. 살기운을 몰고 온 것은 신이지만, 살기운은 신의 분노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신의 맺힌 원한만 풀어주면 재액이 퇴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신의 노한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동시켜 풀어주면, 살기운이 견혀지고 복도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무속에서는 잡귀마저도 무조건 내치려 하지 않고 이들의 맺힌 원한을 풀어주고자 한다. 무당굿을 할 때는 이들을 위한 풍성한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다양한 가무로 신의 맺힌 한을 풀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 신의 해원이 이루어지면 음기와 양기는 균형을 바로 잡게 된다.

무당굿에서는 음양 원리에 입각한 치유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전라도 씻김굿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씻김굿은 억울하게 죽은 망자를 해원시키는 의식인데, 망자의 억울함은 가슴의 원한 즉 분노 때문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분노는 음양 오행의 원리로 보면 화(火) 기운에 해당된다. 음양오행 원리에 크게 의존해 있는 한의학에서는 심장에서 화(火)기운이 형성되고 신장에서는 수(水)기운이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화기운과 수기운이 원활하게 순환되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데, 화기운으로 심장이 막히면 갖은 병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sup>43)</sup> 이럴 경우 한의학에서는 화기운과 수기운이 원활하게 순환하는 방식의 처방을 내리게 된다. 무속에서도 이러한 논리가 작동된다. 망자의 억울한 죽음은 망자의 분노이자 화병이라 할 수 있다. 오구세왕풀이를 보면, 오구세왕님이

43) 주석원, 『8체질 의학의 원리』, 통나무, 2007.

심장의 화병으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오구세왕님의 막내딸인 바리데기가 시왕산 약물을 길러다가 오구세왕님을 살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sup>44)</sup> 오구세왕님의 화병은 화기운에 해당되고, 약물은 수기운에 해당된다. 다시 말하면, 오구세왕님의 병을 화(火)기운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할 수(水)기운으로 치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씻김 의식에서도 음양 원리에 따른 치유가 강조되고 있다. 씻김 의식에서는 망자의 신체를 갖추어놓고 향물·쑥물·맑은물로 씻겨주는데, 망자의 원한은 화(火)기운이고 망자를 씻겨주는 향물·쑥물·맑은물은 수(水)기운이라 할 수 있다. 무당굿에서는 망자의 분노의 감정 즉 화기운을 가라앉히기 위해 향물·쑥물·맑은 물과 같은 수(水)기운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무속에서는 음양의 원리에 의해 환자를 치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속에서는 신과 인간 사이에 맺힌 원한을 신명풀이로 풀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신의 원한은 대개 인간에 대한 분노의 감정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무속에서는 이러한 분노의 감정을 울음과 웃음의 정서로 풀어주고자 한다. 동양의 음양관에서는 인간의 감정조차도 음양의 논리로 파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어둡고 우울한 것·울음·슬픔 등의 정서는 음(陰)으로, 밝고 활달한 것·웃음·기쁨 등의 정서는 양(陽)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sup>45)</sup> 무속에서도 이러한 음양의 원리에 입각해 신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신의 분노를 식이기 위해, 무당굿에서는 주로 울음과 웃음을 유발하는 창법과 가락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무당굿은 신을 분노케 한 원인들을 바깥으로 드러내어 마음껏 울게 하기도 하고 웃게 하기도 하면서 신의 억울한 감정들을 치유하고 있는 것이다.

무당굿의 핵심은 신명풀이 치유 방식에 있다.<sup>46)</sup> 조동일은 신기(神氣)를 신명(神

44) 이영금, 앞의 책, 274~287 참조.

45) 안원진, 『동양학은 이렇게 한다』, 대원출판, 1988, 177쪽.

46) 우주 만물은 신기를 가진 존재이다. 신이나 인간의 억눌린 감정도 신기/신명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러한 억눌린 감정은 탈/살을 가져오기 때문에 감정을 풀어 건강하고 청정한 신기를 가지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건강한 신기/신명을 회복하면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관계가 어그러지 않는 상생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신명풀이를 통해 살을 건어내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무당굿에서는 신명풀이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무당굿은 단순히 관람하는

明)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신명풀이를 신기의 발현이라고 주장하였다.<sup>47)</sup> 따라서 신명풀이는 곧 신기풀이로 이해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속은 신을 비롯한 우주 만물이 신기/신명을 가진 존재라고 여기고 있다. 신기/신명은 본래 생기 있는 건강한 기운이었는데, 신의 원한 때문에 신과 인간의 균형이 깨져 이들의 신기가 탁해졌다고 보고 있다. 즉, 신의 원한으로 음기가 강화되고 탁해졌을 뿐만 아니라 양기도 음기에 눌러 약해지고 탁해져서 신과 인간의 관계가 불균형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당굿에서는 신의 해원과 함께 강화된 신의 음기를 조절하고 음기에 눌린 양기를 강화시켜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꾀하고자 한다. 신의 원한은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신명풀이는 신과 인간 모두에게 적용된다. 다시 말해, 신의 음기는 살기운을 몰고 올 정도로 탁해졌고, 그 살기운에 눌린 인간의 양기도 약해지고 탁해졌으니, 신과 인간 모두가 무당굿의 신명풀이를 통해 본래의 건강한 신명/신기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신과 인간 사이에 맺힌 감정을 풀어주는 신명풀이 방식은 무당굿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무당굿은 여러 개별 굿거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개별 굿거리는 ‘-굿’과 ‘-풀이’라는 명칭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상굿은 조상풀이, 성주굿은 성주풀이, 지신굿은 지신풀이, 제석굿은 제석풀이라 명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굿거리의 명칭에 ‘풀이’라는 단어가 첨가된 것은, 각 굿거리가 신명풀이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말해준다. 즉, 신이 원한을 풀고 건강한 신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각 굿거리가 신명풀이 구조를 이루고 있다 하겠다.

---

공연물이 아니라 액을 물리치거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유적 속성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다른 양식보다도 신명풀이가 강하게 작동되고 있다. 그러나 신명풀이는 탈놀이·판소리·살풀이춤 등과 같은 전통 예능 장르에서도 발생될 수 있다. 이들 예능은 무당굿을 원천으로 해서 형성된 장르고 또 과거에는 세습무 집단에 속해 있던 무속인/재인들이 이러한 장르의 연행 주체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러한 장르에서 신명풀이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이영금, 『해원과 상생의 퍼포먼스』, 민속원, 2011 참조). 그러나 예능화된 이러한 장르는 신보다는 인간의 신명을 풀어주는 쪽으로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무당굿이 신과 인간의 신명을 풀어주는 양식이라면, 탈놀이·판소리·살풀이춤 등과 같은 예능은 신의 신명 보다는 인간의 신명을 풀어주는 양식이라 하겠다.

47) 조동일, 『카타르시스·라사·신명풀이』, 지식산업사, 1997, 106쪽.

무당굿의 신명풀이 방식은 서사무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서사무가는 춤과 노래로 오신하는 다른 굿거리와는 달리 주로 노래로만 오신(娛神)하는 굿거리이다. 물론 서사무가 후반부에는 춤이 동원되기도 하지만, 서사무가는 대체로 신의 좌정담을 다룬 노래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서사무가도 신의 맺힌 한을 풀고 건강한 신기를 회복케 하는 신명풀이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전북지역의 <칠성풀이> 무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칠성님과 매화부인의 혼례·기자치성 과정(홀림 장단)-삼신경 구송 과정(반굿거리 장단)-출산 과정(홀림 장단)-매화부인과 칠형제가 버림받는 과정(반굿거리 장단)-서당 아이들로부터 칠형제가 놀림을 받는 과정(홀림 장단)-천자문 구송 과정(자진모리 장단)-칠형제가 부친을 찾아가는 과정(반굿거리 장단)-매화부인의 신세 타령 및 자살 과정(중모리 과정)-추구(推句) 구송 과정(굿거리 장단)-계모의 거짓 득병과 칠성님이 칠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과정(홀림 장단)-매화부인이 금사슴으로 변신하여 칠성님의 행동을 만류하는 과정(반굿거리 장단)-칠형제를 산에 숨겨두고 금사슴의 아기보를 계모에게 가져다 주는 과정(홀림 장단)-칠형제를 위한 씻김굿 과정(반굿거리 장단)-칠형제가 집에 돌아오는 과정(반굿거리 장단)-계모가 벌을 받는 과정(홀림 장단)-칠형제의 신직 부여 과정(홀림 장단)-신풀이춤(반굿거리 장단)<전북 전금순본><sup>48)</sup>

위에서 살펴본 바처럼, 칠형제와 매화부인은 매우 비극적인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매화부인은 칠성님에게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칠형제가 부친을 찾아 떠나버린 이후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자살하게 되는 비극적인 인물이다. 또한 칠형제도 부친에게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계모의 온갖 흉계로 모진 시련을 겪게 되는 인물이다. 무당과 약사는 이러한 비극적 인물의 맺힌 감정을 풀어주기 위해 다양한 창법과 가락을 사용하고 있다. 즉 버림받고 시련을 겪게 되는 칠형제와 매화부인의 한이 매우 깊다고 보기 때문에, 무당과 약사는 슬픔과 기쁨의 정조를 빚어내는 창법과 가락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이들의 맺힌 한을 풀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화부인이 칠형제를 떠나보내고 탄식하는 대목에서는 무당이 애원성이 짙은 계면조의 창법으로 매화부인의 애절함을 표현해내는데, 이때 약사는 중모리

48) 이영금, 앞의 책, 139~182쪽 참조.

가락으로 무당의 창법을 뒷받침한다. 즉, 무당이 ‘아가, 아가, 금옥같은 내 아들이~/ 잔빠가 굶도록 길러내어서/ 너그들 천지만물 부모에 효도하고/ 나라 국가 충신허라고 갈쳤더니/ 부자천륜이라고 너그 아버지한테 가더니/ 정이 들어 못 오느냐~/ 산이 맥혀 못 오느냐~/ 강을 못 건너서 못 오느냐~/ 집을 잃어 못 오느냐~/ 보고지고 보고지고~’<sup>49)</sup>라는 사설을 계면조의 성음으로 표현해내면, 악사는 무당의 성음에 맞춰 중모리 가락으로 슬픔의 정조를 빚어내는 것이다.

웃음을 유발하는 대목에서도 무당과 악사는 기쁨의 정서에 맞는 창법과 가락으로 밝은 분위기를 조성해낸다. 웃음을 유발하는 대목에서는 대체로 빠르고 경쾌한 창법과 장단이 동원된다. 칠형제가 아버지의 근본을 묻는 대목에서는 매화부인이 슬픈 마음을 감추며 칠형제의 ‘천자문’ 실력을 시험하는데, 이 과정에서 무당은 자진모리와 같은 경쾌한 장단에 맞춰 흥을 돋우는 성음으로 천자문을 가창한다. 또한 칠성님이 칠형제에게 추구(推口)를 가르치는 대목에서도 재가집 당사자와 구경꾼들의 흥을 돋우는 경쾌한 성음과 장단이 사용된다. 이처럼 서사무가의 구조는 비극적 인물의 한을 울음으로 토해내게 한 뒤, 웃음으로 치유하여 신명을 회복시켜 주는 신명풀이 구조를 이루고 있다 하겠다.<sup>50)</sup>

서사무가의 전반부에서는 울음과 웃음의 교체·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후반부에 이르면 울음의 정조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흥을 고조시키는 흥겨운 놀이가 판을 지배한다. 즉 무당굿의 개별 굿거리 후반부에는 흥을 고조시키는 놀이적 요소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칠성풀이의 후반부는 ‘칠형제의 신직 부여·신풀이춤’ 등으로 짜여 있고, 제석풀이의 후반부는 ‘아기어루는 타령·신풀이춤·운맛이·명당경·업맛이·상좌 짝짓기 놀이’ 등으로 짜여 있는 것이다. 이처럼 흥을 고조시키는 놀이 장치를 통해 신은 맺힌 한을 풀고 건강한 신명을 회복시켜 간다고 하겠다.

굿에 참여한 재가집 당사자나 구경꾼들도 무당굿의 흐름에 동화되어 그동안 맺혀 있거나 억눌려 있던 감정들을 하나하나 풀면서 자신의 신기/신명을 회복해

49) 이영금, 앞의 책, 155~160쪽 참조.

50) 이영금, 『서사무가와 판소리의 상관성-전북지역 서사무가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제78집, 한국언어문학회, 2011, 220~221쪽 참조.

나간다. 무당굿은 오신(娛神)적 성격과 오인(娛人)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굿에 참여한 인간에게도 신명풀이가 적용된다는 얘기다. 무당이 서사무가를 가창하면, 재가집 당사자나 구경꾼들은 울음과 웃음을 반복하며 자신의 맺힌 감정을 풀고 본래의 건강한 신명/신기를 회복해간다.<sup>51)</sup>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무당굿은 신과 인간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이를 치유하여 균형을 잡아주는 제의라 할 수 있다. 신과 인간 사이의 불균형은 대체로 신의 원한에서 비롯되는데, 무당굿에서는 이러한 신을 해원시켜 신과 인간의 조화로운 상생 관계를 도모케 하는 것이다. 무당굿의 핵심 치유 방식은 신명풀이에 있다. 신과 인간에게는 원래 건강한 신기/신명이 존재하였는데, 신의 원한으로 인간과 신의 신기/신명이 탁해졌다고 보고 있다. 이럴 경우 무당굿을 마련하여 신명풀이 방식으로 신과 인간 사이의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다. 무당굿을 통해 건강한 신기/신명이 회복되면, 신의 음기와 인간의 양기는 균형을 이루어 상생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 4. 맺는 말

최근 들어 기독교의 이분법적 지배 이념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이념은 하늘과 땅, 남성과 여성, 인간과 자연 등을 이분법적 대립 관계로 보고 전자를 우월한 지위에 위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기독교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배타적 신관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즉 하늘만 중시여기고 땅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또한 이브가 아담의 갈비뼈로 이루어졌다는 가부장적 사유는 남자와 여자를 불평등한 관계로 만들었으며,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다는 인간 우월주의는 자연이나 동물 등의 생명체를 타자화·주변화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이분법적 기독교의 이념은 점차

51) 무당굿의 신명풀이 방식에 대해서는 같은 논문, 213~227쪽 참조.

확산되어 현대인의 정신을 강하게 지배해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무속은 신·인간·자연이 하나의 망(Web)으로 동등하게 연결된 유기적 통합체로서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다. 무속에서는 서구의 기독교 이념처럼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인간·자연이 유기적으로 조직된 한 몸통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즉 무속은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인간과 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분리시켜 보지 않고 유기적 상생의 관계로 보고 있다 하겠다. 신과 인간 사이에 균형이 깨졌을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무당굿이 마련되는데, 이러한 의식을 통해 신·인간·자연은 조화와 균형을 회복하고 상생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우주 만물은 신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은 음기에 해당되고 인간은 양기에 해당된다. 음기와 양기가 충돌하여 상극 상태에 이르게 되면, 신과 인간은 서로 간의 갈등으로 인해 부조화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신의 음기가 너무 강해서 인간의 양기가 위축되어버리면, 신과 인간의 관계는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즉 음기가 양기를 너무 강하게 누르는 상극 상태에 이르게 되면, 신의 음기는 살기가 되고 독기가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살/탈의 원인은 음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기가 가진 원한/분노의 감정에 있다는 사실이다. 신이 분노의 감정을 가지게 되면 그러한 기운은 살기운·독기운이 되어 인간에게 탈/재앙을 가져다주게 된다. 이럴 경우 무당굿을 통해 원한신의 살기운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게 된다.

무당굿의 핵심 치유 방식은 신명풀이에 있다. 신과 인간은 원래 건강한 신기/신명을 지니고 있었는데, 신의 원한으로 인간과 신의 신기/신명이 탁해졌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무당굿에서는 신의 원한/분노의 감정을 울음과 웃음의 정서로 풀어주고자 한다. 무당굿에서는 울음과 웃음을 유발하는 창법과 가락이 주로 사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무당은 신을 분노케 한 원인들을 바깥으로 드러내어 마음껏 울게 하기도 하고 웃게 하기도 하면서 신의 억울한 감정들을 해원시킨다.

무속의 유기적 통합체로서의 세계관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생태주의 사상과 깊이 맞닿아 있다. 생태주의 사상도 모든 존재들이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통합적 사유를 토대로 하고 있다. 생태주의는 환경 오염, 생태계 파괴, 생명 경시 현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사상이지만, 아직은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생태주의 사상에 무속의 생태적 가치와 특징들이 활용된다면, 생태주의 이념 틀이 좀 더 단단해질 것이라 전망된다.

■ 주제어 : 무속, 무당굿, 신명풀이, 신, 인간, 분노 등

### 〈참고문헌〉

- 강영환, 『한국 전통주거에 나타난 음양관』, 『민속학연구』4호, 국립민속박물관, 1997.
-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95.
- 김용옥, 『아름다움과 추함』, 통나무, 2000.
- 김용옥, 『혜강 최한기와 유교』, 통나무, 2004.
- 김의숙, 『민속신앙의례와 속신의 음양관』, 『민속학연구』4호, 국립민속박물관, 1997.
- 김현선, 『민속문학에 나타난 음양관-신화 시조유래담의 변형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의 음양관』, 국립민속박물관, 1997.
- 김현선, 『굿의 생태론적 의의 연구: 황해도 대동굿의 『별대감굿』을 예증으로 삼아』, 『비교민속학』41, 비교민속학회, 2010.
- 문화재관리국, 『부안지방 무의식』, 『한국민속종합조사 보고서-무의식편』, 1983.
- 박진태, 『하회별신굿탈놀이』, 피아, 2006.
- 안원전, 『동양학은 이렇게 한다』, 대원출판, 1988.
- 이경원, 『해원상생의 의미와 천지공사』, 『대순사상논총』, 1998.
- 이영금, 『전북 셋김굿-전금순 무가』, 민속원, 2007.
- 이영금, 『무속사상과 증산사상의 상관성-해원사상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28집, 한국무속학회, 2014.
- 이영금, 『서사무가와 판소리의 상관성-전북지역 서사무가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제78집, 한국언어문학회, 2011.
- 이영금, 『해원과 상생의 퍼포먼스』, 민속원, 2011.
- 임재해, 『굿 문화 연구의 성찰과 역사적 인식 지평의 확대』, 『한국무속학』11, 한국무속학회, 2006.
- 임재해, 『민속문화의 생태학적 인식: 제3의 민속학』, 『당대총서』16, 당대, 2002.
- 임재해, 『민속신앙에서 발견되는 한국인의 자연관과 현대적 변용』, 『한국연구재단 연구성과물』, 2001.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 조동일, 『카타르시스·라사·신명풀이』, 지식산업사, 1997.
- 조정현, 『마을공동체 신앙과 생태민속: 하회별신굿의 생태민속학적 해석』, 『비교민속학』41, 비교민속학회, 2010.
- 주석원, 『8체질 의학의 원리』, 통나무, 2007.
- 홍태한·박우택 엮음, 『한국의 무신도』, 민속원, 2008.
-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행림출판사, 1966.
- 『대순전경』, 1979.
- 『道典』, 1992.
- 에드워드 윌슨, 최재천·장대익 옮김, 『통섭』, 사이언스북스, 2005
- 전방욱 옮김, 『생명의 미래』, 사이언스북스, 2005
- 이한음 옮김, 『인간 본성에 대하여』, 2011.
- 루퍼드 쉘드레이크, 박준원 옮김, 『세상을 바꿀 일곱가지 실험들』, 양문, 2000.
- R. Sheldrake, *Morphic Resonance : The Nature of Formative Causation*, Rochester, Vt. : Park Street Press, 2009.

[Abstract]

## Ecological Thought & Healing Function of Korean Shamanism

Lee, Yeong Geum

Korean shamanism, an organic integration with gods, human beings and nature closely bound, forms a world view. That is, it, not separating the relations between heaven and earth, man and woman, man and god, and man and nature by means of dichotomy, regards them as organic coexistence-relations. Furthermore, it looks upon mediumistic spirit as a key link to the whole creation, and that mediumistic spirit can be categorized into yang energy and yin energy. Heaven, man and human being belong to the former and earth, woman, god and nature the latter. In other words, these two energies lie in the organic relation where these two energies interact with each other very closely. They may conflict or concord with each other. When they conflict to break the balance, the shamanistic exorcism is needed to recovering their harmonious relation.

Korean shamanism thinks of the relation between god and man as that of yin and yang along with emphasis of their harmony and balance. God and man are considered to be yin and yang respectively. When yin and yang conflict to reach an incompatibility, the discord between man and god causes an inharmony. When the yin energy of god is powerful enough to suppress man's energy, the relation between god and man gets unbalanced. If yin energy is so strong that it stunts yang energy to generate the incompatibility, the yin energy of god becomes the energy of killing. What is important is that the cause of killing energy lies not in the yin energy itself but in the feeling of anger which belongs to the yin energy. When any god happens to have the feeling of anger, it becomes the killing energy which causes human beings

disasters.

The way of healing by shamanistic exorcism is Shinmyungpuri. Originally god and man have healthy Shinmyung, which is thought to have been murkier due to god's grudge. Since it is caused from the relation between god and man, Shinmyungpuri is applied to both god and man. That is, the yin energy of god gets murky enough to generate the killing energy and also the yang energy of man which has been suppressed by the killing energy, both god and man are trying to recover the intrinsic wholesome Shinmyung through Shinmyungpuri. Shinmyungpuri by shamanistic exorcism is the way to get rid of the grudge between man and god by the emotion of crying and laughing. The shamanistic exorcism employs a singing method and melody inducing cry and laugh, when god and man cry or laugh in the course of expressing their emotion of grudge which has been accumulated so that they may be healed. Through this ritual, god and man recover their wholesome shinmyung.

**【Key Words】** shamanism, the shamanistic exorcism, Shinmyungpuri, god, man, grudge

---

---

이영금

안동대학교 인문대학 민속학과

(760-749)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 (송천동) 안동대학교 인문대학 민속학과

전자우편 : 075white@daum.net

---

---

이 논문은 2014년 10월 31일에 투고되었으며, 2014년 11월 20일에 심사 완료되어 11월 25일에 게재 확정되었음.